

# 내년 예산 35조7843억 ‘역대최대’... 복지 10조 돌파

## 2019 서울 예산안

###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방점 주거안정 등 8대분야 중심투자 일자리에 1.78조... 55% 증액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를 시작한 이후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 개개인의 삶의 무게를 나누고 책임지겠다”며 3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35조7843억원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했다. 최근 8년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특히 복지 예산에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며,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외부경비 8조9418억원을 뺀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 감소로 올해 예산 대비 6893억원 증가한 17조7858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지방채 2조4021억원을 발행해 확대 재정 운용한다.

박 시장은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시는 지난 7년간 8조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해 재정 균형을 이뤄왔다”며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확대 재정을 해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며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다. 8대 분야는 ▲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복지 예산은 내년 11조1836억원으로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5.8% 늘어난 규모로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는 총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총 1조272억원을 편성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시는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캠퍼스타운은 32곳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에도 착수한다.

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967억원을 투자한다.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 ‘자영업자 3중세트’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3조5462억원을 투입, 돌봄공공책임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노후 지하철과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안전 분야에는 1조4781억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5442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분야에는 5440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이 투자해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 프랑스 에어리퀴드, 경기 화성에 310억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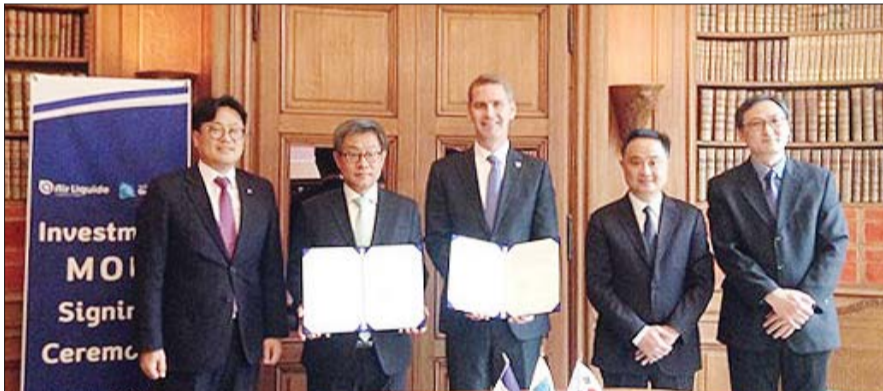
### 투자공장 증설... 고용 창출 기대

세계적인 화학회사이자 산업용가스 분야 선도기업인 프랑스 에어리퀴드가 경기도 화성 장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2800만 달러(한화 310억원, 외국인직접투자 미정)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머티어리얼즈 폴 카드웰 버링게임 대표는 지난 3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어리퀴드 그룹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어리퀴드는 화성 장안 외국인투자지역에 2014년 전자재료 부문 첫 공장을 준공한 이후 신제품 개발연구를 진행해 왔다. 에어리퀴드는 최근 반도체 공정의 성능개선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신제품 상용화를 위해 이번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에어리퀴드는 약 310억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인데 공장증설이 완료되면 화성공장이 아시아의 반도체용 신소재 생산기지 역



박신환 경기도경제노동실장과 에어리퀴드 폴 카드웰 버링게임 대표가 협약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공장 증설로 2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어리퀴드는 이번 협약에서 110년 안전경영의 전통을 가진 자사의 화학 안전기술 노하우를 도내 특성과 고등학교에 전수하는 등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에어리퀴드는 1902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됐으며, 산업가스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약 26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 진출

해 3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철강,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 및 가정 의료 부문에 이어 수소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폴 버링게임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머티어리얼즈 대표는 “장안외투단지 확장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한국 및 해외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투자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의 강력한 지원과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겨울철 노숙인·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추진

### 서울시, 콜센터 운영 등 보름 앞당겨

서울시는 이른 추위가 예상돼 전년보다 보름 앞당긴 1일부터 겨울철 노숙인과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주요 내용은 ▲노숙인 응급 잠자리 ▲거리 노숙인·쪽방촌 현장상담반 109명 편성운영(특보시 132명) ▲중증질환자 244명 집중관리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노숙인 시설·쪽방촌 화재예방 관리 지원 등이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지원사업) 110개를 연계해 최대 1336명까지 수용 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마련한다.

거리노숙인 순찰·상담반과 쪽방촌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매일 2~4회의 순찰과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자 등 244명을 별도로 분류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전문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11월 초 한파 관련 사고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를 제공해 보호한다.

시는 기업과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3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시설 등의 노숙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라운건설 등 5개 업체 주택 품질검수 ‘우수’

### 경기도, 아파트단지 143곳 평가 ‘전인씨엠 사무소’ 우수 감리업체

경기도가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14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라운건설·반도건설·아이에스동서·호반건설을 우수 시공업체로,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를 우수 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운건설은 수원 라운프라자 아파트, 반도건설은 의정부 민락반도유보라아 이비파크아파트, 아이에스동서는 하남에 일린의 뜰 아파트, 호반건설은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단지를 시공했다.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는 수원 영통 라운프라이빗 아파트 단지를 감리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 토목, 조정, 전기·기계설비,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등 아파트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시·군 담당부서 자체평가와 민간전문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다. 시공사별 선정내용은 라운건설의 수원 라운프라이빗아파트는 단지 중심부에 소나무 정원, 빛의 정원, 물의 정원을 조성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기계실 정비 및 배관 우수마감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승열 기자

## 서울시, 양화대교 경관조명 LED로 교체

### 에너지 48% 절감효과 기대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에너지절약 지침에 따라 소등했던 양화대교 경관 조명을 LED 조명으로 새로 단장해 2일부터 점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된 LED 조명은 다양한 조명 연출이 가능하고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다. 시는 기존 저압 나트륨등(5만 8728W)에서 LED 조명(3만 284W)으로 교체한 후 약 48%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양화대교 아치의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 화이트와 골드톤의 조명을 설치했다. 다리 난간은 여러 가지 색을 내 화려함을 강조했다. 교량 아래에는 유람선이 다니는 점 등을 고려해 다른 교량보다 밝은 조명색을 사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경관조명은 ‘신·구의 화합을 통한 번영’을 주제로 디자인됐다. 교량 점등 시간은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시민들이 한강 둔치로 밤 나들이를 많이 나오는 5~10월에는 자정까지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양화대교 모습. /서울시

현재 한강 교량은 총 25곳이다. 이중 경관조명을 운영하는 곳은 이번에 점등하는 양화대교를 포함, 총 19곳이다. 시는 내년 잠실철교 경관조명을 보수해 점등할 계획이다.

천호대교, 마포대교, 마곡대교 등 나머지 대교는 오는 2020년 이후 연차적으로 점등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양화대교에 경관조명이 더해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